

■ 광주전남 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 건설·안전·교통·노동분야

“시민 삶 밀접 교통·안전·일자리 대폭 확충·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광주 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노동단체 등 지역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를 대표하는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전남 통합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체계, 도시 안전, 일자리 등에 미칠 실질적인 변화를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특별법안과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배경과 경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며 “통합은 일자리이다. 행정구역을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삶의 변화를 낚는 일이고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대화·타협·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습니다’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격려했다”며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자유토론에서는 분야별로 통합

건설·안전·교통·노동계 등 150여명 참석...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초광역 교통체계·재난 지휘본부·고용 안정화 등 통합 전략 논의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건설 분야 관계자들은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역 단위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공투자가 확대돼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함께 행정 경계를

넘는 환승 체계 통합, 요금체계 개선 등을 시민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등 안전 기준 강화, 노동 분야에서는 통합 이후 산업 확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고용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 시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특

별법 제정 과정 등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 뒤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의 과정이 뒤따를 것인 만큼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 의견을 행정통합 정책 설계와 특별법 보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신영길 기자



광양만권 입주기업 실적 ‘청신호’

2024년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매출 6.6%·수출 25.6%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종곤, 이하 광양경제청)은 2024년 기준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매출·수출·사업체 수 등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광양만권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고용, 매출, 경영 실태 등 총 56개 항목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광양만권 입주 기업의 총 매출액은 18조9,930억 원으로 전년(17조8,254억 원)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평균 증가율(2.0%)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수출액 역시 1조2,591억 원으로 전년(1조222억 원) 대비 25.6%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10.3%)을 크게 상회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도 광양만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사업체 수는 총 739개로 전년(702

개) 대비 5.3%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4.4%)을 넘어섰다. 이를 통해 광양만권이 안정적인 산업기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전략적 투자요충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액과 고용 지표도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투자액은 1조1,233억 원으로 전년(1조233억 원) 대비 9.8% 늘었고, 고용 인원은 2만1,662명으로 전년(2만755명) 대비 4.4% 증가했다. 다만 전국 평균 증가율(투자액 14.4%, 고용 8.8%)에는 미치지 못해, 향후 신산업 중심의 대규모 영기업 유치와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연계하는 전략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구종곤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우주·항공 산업 등 핵심 미래성장산업과 세풍산단 이차전지 소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시·국토부,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본격 추진

30일 시청서 기획위원회 출범... 사전기획 용역 착수보고회도

국정과제 ‘미래모빌리티-K-AI 시티’ 핵심사업... 2028년 착공

광주시가 첨단 모빌리티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약 30만평 일원에 조성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의 밑그림이 가시화하면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기획 용역 착수보고회 및 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는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약 30만평 일원에 조성되는 미래형 신도시로,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개발·실증하

는 국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학교수, 네이버클라우드 등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30여명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기본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착수보고회에 이어 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회의가 열렸다. 첫 회의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광주의 미래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사업임에 공감하며, 기존 스마트 시티를 넘어선 새로운 도시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상태인 미래차국가산업단지에서 출발하는 만큼 기존 스마트시티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광주가 구상하는 AI 모빌리티 비전과 연계된 큰 그림을 기본구상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위원들은 광주가 지속 가능한 ‘AI 모빌리티 시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영커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며, 광주가 보유한 인공지능(AI)집적단지, 미래차산업 기반, 에너지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부·산업부 국정과제 및 과

기정통부의 관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기본구상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오는 5월까지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 분석 ▲프로젝트 비전 및 목표 설정 ▲입지 및 공간 구상 ▲메가센드박스 등 규제혁신 방안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기본구상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종팔 기자

작년 12월 광주·전남 소비 ‘위축’... 생산·건설수주 ‘엇갈리’

광주 광공업생산 ↑ 건설수주 ↓ ... 전남은 반대

지난해 12월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소비가 위축된 반면, 광공업 생산과 건설수주는 두 지역이 엇갈렸다.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처가 발표한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했다.

전기장비(36.1%), 자동차(14.3%), 전자·통신(50.6%) 등이 증가했으나 고무·플라스틱(-35.0%), 금속가공(-34.6%), 기계장비(-10.7%) 등이 감소했다.

12월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2.0으로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3.0%, 대형마트 판매는 9.3% 각각 감소했다.

신발·가방, 가전, 기타상품 등이 증가했

으나 음식료품,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 등은 감소했다.

12월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110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8%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감소로 66.8%, 민간부문은 부동산, 건설업 감소로 72.0% 각각 감소했다.

건축부문은 73.0%, 토목부문은 62.7%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광공업생산과 소비가 줄었으나 건설분야는 증가했다.

전남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했다.

식료품(14.8%), 석유정제(3.7%), 전기·가스업(2.6%) 등이 증가하고 화학제품(-9.0%), 1차 금속(-6.4%), 전기장비(-38.5%) 등은 감소했다. /유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복성가정